

제6회 아시아대학생영화제 큰 성과 거두다

아시아 영화학도들이 세계를 향한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



▶아시아대학생영화제 단체 사진

동서대학교는 지난 10월 1일 센텀캠퍼스 소량뮤지컬씨어터에서 아시아대학생영화제를 개최하여 4일 동안 본 행사를 진행하였다. 아시아대학생영화제는 해마다 영화제 개최국도 바뀌고 주최하는 대학도 바뀐다. 영화영상에서 특성화된 대학만큼 올해는 우리대학에서 아시아대학생영화제를 부산 국제영화제와 공동 주최하였다. 동서대 링크플러스(LINC+) 사업단에서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부산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7개국의 23개 대학이 영화제에 참여하였으며 총 43편의 우수 작품들을 선보였다. 동서대를 비롯해 한국의 6개 주요 영화대학, 중국의 8개 대학, 일본의 5개 대학, 태국의 방콕대학, 베트남의 하노이연극영화아카데미, 인도네시아 페트라크리스천대학, 카자흐스탄 국립예술대학 등의 대학이 참여하였다.

아시아대학생영화제는 영화대학들이 문화 교류를 통해 아시아의 영화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만든 영화제이다.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보

고 느끼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는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다. 이 영화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 중국, 일본의 여러 대학들이 협의체를 이루어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의체 대학들은 매년 영화제를 주최하는 대학에 힘을 보탠다. 아시아 영화의 보다 밝은 미래를 열망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극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학창시절의 고민들, 20대 정춘의 좌충우돌 사회 입문기, 젊은이들의 눈에 비친 가정세대의 문제들을 다루었다. 또한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악녀(2017)' 박정훈 촬영감독이 촬영 과정을 생생히 들려주었으며 학술세미나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21세기 급변하는 아시아와 아시아 영상·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진행되었던 모든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가 가능하였다.

장재국 동서대 총장은 "아시아의 젊은 영화학도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세계를 향한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영화제의 취지를 밝혔다.

아시아대학생영화제에서 동서대 영화와 학생들이 출전한 작품은 매월기(Selling

Blood), 시선(Birdcage), 임랑(Imrang)이다.

매월기(Selling Blood) : 장지혜 감독이 연출하였으며 짧은 부부인 승재와 은선이 나온다. 이 둘 사이에 아기가 생기면서 마땅히 직장 없던 승재는 급히 돈을 벌기 위해 일삼 시험 알바에 참여하게 되고, 이후 승재의 몸에 붉은 반점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일에 대한 이야기이다.

시선(Birdcage) : 최혜슬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며 여자는 남자인 후배의 도움으로 위험한 상황을 넘기게 됐지만 감시를 당한다는 불안감을 계속 가지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이다.

임랑(Imrang) : 김소영 감독이 연출하였다. 현수는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나 버려가는 날 오랜만에 걸려온 엄마의 전화를 신경질적으로 받았다. 계속해서 마음은 불편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니 앞에서 한없이 밝고 씩씩하게 대한다. 이내 엄마를 닮은 남자친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현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돌아온 집에서 현수는 엄마의 흔적과 마주하게 된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아시아대학생영화제의 마지막 날에는 대

학생 부문에서 작품 '시월' (감독 마리아 하부리), 대학원생 부분에서는 '도둑의 죽음' (감독 천 민왕)이 각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대학생 부문 은상 '종말의 주행자' (감독 조현민), '형제' (감독 엘라만 사우바노브), 동상 '매구미' (감독 마도카 미치오카), '비가 그칠 때' (감독 유이 아마구지), '기대주' (감독 김선경)가 상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대학원생 부문 은상 '삶의 의미' (감독 지 스웬, 정즈웬, 장 사유름, 천 이자), 동상 '귀화골목의 추억' (감독 판 조이)이 상을 받게 되었다. 심사위원 특별상으로는 '더리아라' (감독 아부라이트 누알라이하마이트), '너만 있다면' (감독 이사가 유야)이 상을 받았다.

성지혜 심사위원장은 "학생들의 작품 수준이 너무 높았다. 학생 작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심사를 했다. 내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여러분의 작품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동서대의 임택 감독도 본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장에 깊은 열의를 보였다.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2019 배프 in BIFF 개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배프 in BIFF 행사장 모습

동서대학교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부산 센텀시티 일대에서 2019 장애인미디어 축제인 '배프 in BIFF'를 개최했다. 배프는 Barrier-Free와 Best-friend를 합쳐 만든 단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이다.

우리대학은 2019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 I 유형(컨소시엄형)에 선정되었으며 여태껏 부산 배리어프리존 확대 운영 및 장애인 문화·예술 선도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본 행사는 2019 부산국제영화제의 공식 이벤트로서 열린 행사이며 부산시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동서대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센텀시티 배리어프리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배리어프리 기반의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 행사가 구성되었는데 영화, 뮤지컬, 밴드 공연, 독립영화 쇼케이스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특강, 장애인을 위한 신기술 전시, 어둠 속의 영화관, 청각 장애인 라디오 공개방송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10월 4일부터 6일까지는 남포동 BIFF광장에서 '미디어버스&라디오 BIFF FM'을 주제로 동서대 뮤지컬과 오세준 교수와 학생들이 뮤지컬 원작의 영화를 소개하고 즉석 연기를 하는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부산시민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보였다.

10월 9일에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배리어프리 독립영화를 상영했다. 그다음날인 10월 11일에는 소량뮤지컬씨어터에서 음향 해설과 자막 해설을 삽입한 배리어프리 버전 뮤지컬 '헤어스프레이' 공연을 열었으며, 이는 비장애인과 시청각 장애인이 함께 관람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었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비프 빌리지에서는 IT 전공과 디자인 전공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산학 교과목 '아이데이션' 수업 을 통해 제작한 배리어프리 진화형 제품을 전시하였다.

이에 본 축제에 참여한 한 학생은 "처음 경험해본 시각장애인 체험이었는데 평소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배웠습니다. 귀한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수기를 남겼다. 또 다른 학생은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정말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 같아 우리 삶에 정말 큰 소중한 것 이란 걸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앞으로 우리대학은 센텀시티 배리어프리존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애인미디어축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동서대 LINC+ 사업단 또한 계속해서 어둠 속의 영화관, 배리어프리를 위한 신기술 전시, 어둠 속의 영화관, 청각 장애인 라디오 공개방송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Busan Brain 21+ 사업 성과 공유회 열려

고령화친화산업 적응형 보건의로 고급인재양성 사업단 우수 사업단 선정



▶BB21플러스 1차년도 사업 우수사업단에 선정된 모습

9월 27일 더파티 부산 시청점에서 'Busan Brain 21+ 사업' 성과 공유회가 열렸다. 이 모임은 'Busan Brain 21+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 사업단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한 사업단에게는 시상하는 자리였다.

이날 동서대학교의 '고령친화산업 적응형 보건의로 고급인재양성 사업단'이 2018~2019년 우수 사업단에 선정되었다.

'Busan Brain 21+ 사업'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2002년에서부터 시

작하여 현재에는 6단계의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되는 6단계 지원 사업에서는 총 사업비 3억 내외로 21개의 과제가 추진되게 된다.

이날 사업단장인 방사선학과 정영진 교수는 "우수 사업단에 선정되어 2차 연도 사업(2019~2020년)에서 기존 사업비 외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사업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70% 이상이 학생 장학금으로 활용됨으로써 학생들에게 아주 큰 혜택이 갈 것으로 전망

된다.

본 사업에는 동서대학교 방사선학과와 작업치료학과가 공동으로 고령인구의 뇌기능 진단 및 평가를 위한 기술과 기기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활 서비스 개발과 교육에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대학의 방사선학과와 작업치료학과는 의료분야 및 응용분야를 접한 환경 속에서 교육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전공 목표를 통해 국가 보건 의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를 양성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이고 유능한 전문 작업치료 인력의 양성 ▲앞선 기술로 재활치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탁월한 실력을 갖춘 인력의 양성 ▲기초의학 및 임상심리교육의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세계화에 따른 전공영역교육 강화를 통한 해외취업 및 해외 자매대학의 연수를 통한 미래지향적 인력 양성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다가치 리빙랩 협약 맺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젝트 기획



▶리빙랩 협약식에서의 모습

동서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사상 지역에서 다문화 사회가 정착되면서 이들을 위해 동서대학교 LINC+ 사업단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우리대학은 지난 9월 30일 '다가치' 사업을 위한 리빙랩 협약'을 맺음으로써 앞으로 사상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려 한다.

위 협약은 사상 지역의 다문화 사회 중심의 문화콘텐츠 발굴 및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의 교육철학을 실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 12일 첫 번째 작업으로 사상 지역 내 벽화 디자인이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우리두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사회 구성원의 편견 해소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

기 위해 사상 지역 관련 기관과 일반가정, 다문화가정이 함께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는 작업이다. 10월 중순 인터랙티브 벽화 오픈링 행사를 개최하며 본 행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외에도 동서대 LINC+ 사업단을 비롯하여 협약 기관들은 정기적인 리빙랩 모임을 통해 사상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다가면서 다문화 사회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기관으로는 사상구청, 사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문화센터, 부산의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담쟁이가그린세상, 소멸협동조합의 기관이 있다.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동서대, 디자인학부 졸업작품 전시회 개최

디자인홀과 ICB에서 11월 말까지 개최 예정

민석도서관, 특강의 날
발레 '지젤'의 감상회



▶통합 오픈식에서 박수치고 있는 모습

10월 16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 ICB (구 GSI) 3층 갤러리에서 통합 오픈식이 열렸다. 통합 오픈식은 ▲개식선언 ▲대표 학생 인사 ▲전시안내 ▲동영상시청(오프닝 영상) ▲내빈 및 각 루트별 위원장 소개 ▲학장인사 ▲총장 축사 ▲전시회 관람 순서로 진행됐다.

오픈식에서 김순구 디자인대학 학장은 "4년간 최선을 다한 예비 졸업생들의 열의가 졸업작품을 통해 축하된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믿음으로 지켜봐 주신 학부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디자인대학 교수들은 학생을 위한 열정과 사명으로 국제수준의 교육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에 힘을 쓸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다짐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재국 총장은 “올해는 작년과 달리 7개 부서가 한꺼번에 릴레이로 작품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 부처별로 릴레이로 진행하다가 이렇게 같이 하게 되니 다른 부처의 활동도 관심도 가지고 거기서 배우는 것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통합·융합의 시대여서 한 분야만 잘해서는 안 되고 여러 분야를 같이 섭렵하는 것이 중요됩니다.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큼니다.”라며 “동서대 디자인은 한강 이남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지정이 나 있는데 이 대학에서 여러분이 졸업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9월 초에 디자인대학은 2단계 특성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국내에서 만족하지 말고 세계로 나가는 디자인 대학이 되자는 것인데 세계적인 디자인 석학교수들도 모였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수준의 디자인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축사를 했다. 이어 "디자인은 앞으로 더 전망이 좋은 분야입니다. 여러분이 디자인 분야로 진출하면 아마 사회의 각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회에 진출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어 자신을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땀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축사를 끝냈다.

올해 디자인학부 졸업작품 전시회는 7개의 큰 루트를 가지고 진행된다. 각각의 주제에 맞는 작품과 의미가 담겨있다. 먼저 Digital Media 루트는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열리는 곳은 디자인원 1층과 ICB 3층 디자인갤러리이며, 주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이렇지 않지 졸업작품의 원장은 “주제가 하나로 정해진 콘셉트 전시회인 만큼 각 학생들의 작품이 콘셉트와 맞아야 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전시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보며, 함께 1년을 버려준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두 번째 Graphic 루트는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장소는 디자인홀 1층 디



▶졸업작품회 모습

자인갤러리이며 주제는 최종~마지막 zip
이며 총 37명이 참가했고 12팀의 출품 작
품이 나왔다. Graphic 루트 주제는 대학
에서의 마지막 작품을 다섯 개의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누어 모두 함께 모아 세상에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Product Innovation 루트는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ICB 3층 디자인갤러리에서 열렸다. 주제는 READY이든 사회진출의 준비를 뜻한다. 15명의 학생이 14팀의 출품 작품을 만들었다. 이주현 졸업위원장은 “이렇게 졸업작품전을 하기까지 많은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주신 부모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5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무사히 하고 사회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

네 번째 Creative Advertising 루트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디자인을 1등 및 ICB 3등 디자인갤러리에서 열었다. 주제는 F5이후 주제의 의미는 CA부터 전시회 명칭 'F5'는 졸업이 끝이 아닌 모두 다는 곳으로의 새 출발을 의미한다. 이 명칭은 엘리베이터를 철학적 관점으로 해석하여 목적지는 다르지만 함께 올라간다는 의미를 뒀고, 층을 의미하는 F, 루트 위치인 5를 결합한 것을 차용했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Environment1/Environment
2 루트이다.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

되며, 디자인을 1층 디자인갤러리에서 열린다. 주제는 E와 E*로 나뉜다. 또한 여기에는 대해 유니나 졸업위원장은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전경 속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4년간 여러 가지 이론과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짧은 기간이었지만, 졸업 전시회를 통해 저희를 개개인의 성장을 잠시나마 보여드릴 수 있어 굉장히 뜻깊은 전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공감을 말했다.

여섯 번째 Communication 루트는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ICB 3층 디자인갤러리에서 열린다. 박보승 졸업위원장은 “예비 디자이너들의 멋진 졸업작품 전시회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Industrial Service 루트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ICB 3층 디자인갤러리에서 열린다. 주제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재생 프로젝트이다. 김성태 졸업위원장은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접 동구에 스며들어 주민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다양한 이슈들을 찾아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 고민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동서대 디자인학부 졸업작품 전시회는 11월 말까지 진행되며 아직 다양한 주제를 가진 루트가 남았다.

이주원 기자
soo4793@gmail.com

성경암송대회가 열린다

진리, 창조, 봉사의 건학정신



▶ 2019 성경암송대회 참가자와 심사위원의 모습

지난 10월 02일 수요일 오후 1시에 성경
암송대회가 동서대학교 복음화 센터 (산학
협력관 5501 강의실)에서 열렸다. 신청 기
간은 9월 27일까지였으며 별첨은 에베소서
4장 17-32절이다. 성경 버전은 한글-개역
개정이고 총 장학금은 1,700,000원(백칠십
만 원)으로 시상자 수는 미정이다. 성경
구절의 경우 동서대학교 교복식 홈페이지
를 통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순
서로 음악과 글로병한 대대인을 인증했다.

올해 성경암송대회는 동서대학의 한 해 표어가 들어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적는 것이었고, 성경암송대회는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초부터 홍보를 시작했다. 신청한 학생은 약 60명의 학생들이 신청했고 이후 2일 열리는 대회는 약 30명이 참여했다.

성경암송대회의 순서는 ▲유익인 교목실
장의 개회사 및 기도 ▲박성미 민선교양대
학장의 축사 ▲최효준 교목의 인사 거건
발표 ▲성경암송대회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했다. 심사는 총 5명의 심사위원이 평
가를 했으며, 올해 성경암송대회의 최우
수상은 경향행정학과 3학년 윤근 학생이
차지했다. 유은학씨는 "우선 거룩하신 하
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귀한 기회
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암송대회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외운
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점차 성경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여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

씀이 제 인생의 지표가 되어감을 느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목표를 확고히 세우게 되었습니다.”라며 “저는 에베

소서 4장의 구절 중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데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를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제 몸은 겉잡아 되는 것인데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항상 자신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주님의 참된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성경 암송은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지 않고 기억에 의존하여 입으로 외우는 일을 말한다. 성경암송대회는 매년 열리는 대회로 학생들의 꾸준한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이주원 기자
soo4793@gmail.com

과기부 선정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6년간 총 103억원을 지원 받는다



올해 동서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부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됐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되면 향후 6년간 103억 원의 지원을 받고 AI·SW 교육에 집중 투입 된다.

SW중심대학은 대학교육을 SW중심으로 혁신함으로써 SW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학생·기업·사회의 SW경쟁력을 강화해 진정한 SW의가치 확산을 강화해 진정한 SW가치 확산을 실현하는 대학을 말한다. 또한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강화해 SW핵심 SW교육 혁신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SW중심대학의 중요내용은 혁신적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우수한 교육역량과 실무 경험을 갖춘 강의 전담 교수 및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참여의 확대로 실시되며 또한 학과/대학 신설 및 타 융합 전공의 트랙개발을 통해 새로운

로 동서대는 AI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기술과 부산의 문화콘텐츠 산업특성을 잘
반영해 문화콘텐츠 AI·SW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등 최첨단 기술을 주도하는 대학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대는 AI와 SW 분야를 주도하기 위해 ▲SW융합대학 설립(컴퓨터공학부의 디지털콘텐츠학과 통합) ▲AI 심화트랙 ▲AI 공학, 빅데이터) 신설 ▲SW심화학과 입학정원 16% 확대(225명→280명)를 추진 중이다. 또한 24학년도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있다. 2학년 SW전공을 ▲AI 12+ Course(AI 기업 현장실습회, AI 프로젝트 2건, AI 핵심교과 3+ 인증제)를 통해 연간 AI 전문가 123명 이상 배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AI 콘텐츠, AI 디자인공학, AI 헬스케어 등 6개 특성과 SW연계전공을 운영해 누구나 인공지능을 복수전공할 수 있게 하고, 내년부터 신입생 전원에 코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대해 장재국 동서대 총장은 "우리 대학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사업, ACEA사업, LINC사업 등 국가가 주관하는 핵심 사업에 모두 선정됐다. 이를 계기로 우리대학은 제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의 선봉자로서 서는 대학이 되겠다."라고 힘써 말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협의회의 SW중심대학의 추진배경으로는 우리나라도 세계인적자원 확보 수용에 대응해 대학 SW교과 및 교육체제를 혁신하고, 글로벌 마인드 및 창의적 융합사고를 갖춘 SW전문·융합인력 양성을 위해 2015년부터 중심대학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sw중심대학
이주원 기자
soo4793@gmail.com

동서대 국제 청소년리더 교류 지원 사업 선정

아시아의 허브 부산, 글로벌 청년의 꿈을 품다



▶국제 청소년리더 교류 지원 사업 선정 모습

올해 초 대학교육 국제화를 선도하고 있는 동서대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년 국제 청소년리더 교류 지원 사업' 운영 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2019년 국제 청소년리더 교류 지원 사업'은 19~24세 다국적 대학생들 간 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체류 유학생의 한국 문화, 역사,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켜 국가 간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획되어 2017년부터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추진한 사업이다.

해당 '2019년 국제 청소년리더 교류 지원 사업'에 동서대는 2019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0월 10일 프로젝트 발표회 및 수료식을 통해 3주간의 프로그램을 종료하였다. 동서대 장제국 총장은 "이 사업은 글로벌 쉼

퍼스를 지향하는 데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동서대에 재학하는 다국적 유학생과 한국 학생 간 교류·협업하도록 도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글로벌 마인드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동서대는 '아시아의 허브 부산, 글로벌 청년의 꿈을 품다'는 주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42명, 외국인 학생 60명 등 총 10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산업단지 및 부산 스마트 기술 생태계 체험', '디자인과 창의적 사고 학습',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상생과 발전'과 '부산 영화로 이야기하다'의 프로젝트 키워드로 탐방 활동을 하였다.

올해 이 사업에 선정된 곳은 동서대,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충남대, 한국외대, 호산대, 계명문화대, 경성대, 가천대, 강원

대, 공주대, 광운대, 군산대, 상명대, 한서대 등 15개 대학이다. 올해 '2019년 국제 청소년리더 교류 지원 사업'은 교류 활동의 자기 주도성을 강화하고 세계 문제를 다루는 등 대학별 특성과 프로그램 구성에 중점을 뒀다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Sasang Restoration(사상 복원 사업)' 주제 발표가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우수상으로는 'Trident, Tradition & Identity(전통과 정체성)'과 'Urban Renaissance-World Around the Corner(도시재생-우리 곁의 세계)'가 각각 수상하여 최우수상 상금 100만 원과 우수상 상금 50만 원을 각각 수여받았다.

이날 학생들의 프로젝트 발표 심사는 한경호 국제처장, 김정선 국제부 처장, 김동현 디자인대학 책임교수가 맡았으며, 한경호 동서대 국제처장은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협업(Collaboration)과 소통(Communication)능력을 보유한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다. 한국 및 다양한 국가의 외국 학생들이 지난 3주간 팀별 프로젝트 수행, 숙박형 역사와 문화체험, 산업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참가하였고, 이를 통해 협업과 소통으로 훌륭한 프로젝트 결과를 도출해준 학생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격려했다.

또한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여러 국적의 대학생들이 만나 서로 배우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하나가 되는 국제 청소년리더 교류는 청소년들의 국제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rudvmfhelxp@gmail.com

■ 학과별 Q&A 인터뷰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가 궁금해!

Q.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2016학번 변수현입니다.

Q.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A. 우선 '메카트로닉스'란 이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메카트로닉스는 전자공학의 'Electronics'와 기계학의 'Mechanic'를 합친 말로써 전자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을 복합적으로 배우는 학부입니다. 예를 들면 전자회로, 캐드, 코딩, 프로그래밍, 아두이노 등을 배웁니다.

Q.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요?

A. 저희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은 스코프 행사가 있습니다. 스코프는 4학년들이 졸업작품을 만들거나 3학년 이상 학생들이 팀원들과 함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Q. 졸업 후 취직은 어떻게 되나요?

A.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 자동차, 항공기 등은 기계, 전자, 시스템 등 한 분야만 이루

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전기와 기계적 본질이 어우러진 복합체로 메카에 적합한 분야입니다.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는 전자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모두를 복합적으로 배우는 학부인 만큼 취업의 폭은 정말 넓고 다양합니다.

Q. 취직을 위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나요?

A. 메카트로닉스에서는 정보처리기사, 네트워크 관리자, 리눅스 마스터, 정보 보안산업기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전기산업기사, 메카트로닉스 산업기사 등이 있습니다.

Q. 기억에 남는 과제가 있으신가요?

A. 1학년 때 했던 역설계가 기억에 납니다. 3D스캐너로 사물을 스캔한 다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이나 아크릴 등으로 직접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Q.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를 한 단어로 설명해주세요!

A. 인생. 쓰다 외롭고 힘들다.
김민경기자
rudvmfhelxp@gmail.com

동서대, '제8회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 부산대회' 우승

부산대회 우승, 전국대회 준우승 패거리를 이룬다



▶일본어 디베이트 대회 우승 사진

지난 9월 29일 신라대 사범관에서 '제8회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 부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디베이트(Debate) 대회는 부산대회와 서울대회 그리고 전국대회로 나뉘어 총 3번 진행된다.

부산대회·전국 대회는 주 부산 일본국 총영사관, 부산일본인회,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 대회 운영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서울대회는 주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공보문화원,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 대회 운영위원회가 주최다.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 대회는 대학별로 신문기사나 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일본어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수준 높은 대회이다.

'제8회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 대회'는 대학별로 3명 이상의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참가한다. 각 팀은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 사전 준비로 주어진 주제와 관련한 신문기사나 논문,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찬성과 반대의 각 입장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한다.

참가 자격은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자, 국내 소재 대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구성되며 팀 대표자가 소속하는 학과의 학과장을 추천을 받으면 팀, 1대학에서 1팀(3~4명)이 출전, 4명 중 3명(3명 팀인 경우는 2명)은 일본어 체류 자격이 1년 미만, 1명은 5년 미만까지 인정 (체류 기간은 만 5세 이후 일본에서 체류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 등이 다.

대회는 서울·경기 지역과 강원, 충청 지역이 참가하는 서울대회와 전라, 경상 지역이 참가하는 부산대회로 나뉘며, 각 대회의 1, 2위 팀이 전국 대회에서 다시 한번 실력을 겨루게 되어 있다.

대회 결선 방식은 두 차례의 예선을 거친 후 1, 2등을 겨러 마지막으로 결승을 치르는 방식이다. 대회에서는 입론→질의

→제1반박→제2반박의 진행으로 참가 학생 4명이 규칙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참가 학생이 3명인 경우에는 입론과 질의를 같이 담당하였다.

'제8회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 부산대회'에는 동서대를 비롯하여 동국대, 부산의대, 신라대, 한국해양대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3, 4명이 한 조가 되어 '한국의 대학은 모든 성적 평가를 교원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 옳은가 그른가'라는 주제를 놓고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대회에서 우승은 동서대 일본어학과 4학년 고운정·하가현, 3학년 김지수 3명이 한 팀으로 출전에 우승을 차지하였다. 준우승은 부산의대 학생들이 차지하였다. 부산대회가 진행되기 하루 전, 9월 28일 주 대한민국 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제8회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 서울대회'가 개최되었다.

해당 대회에서는 서경대가 우승을 경기대가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서울대회와 부산대회에서 우승·준우승한 4개 대학은 10월 5일 신라대학교 사범관에서 진행된 '제8회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 전국 대회'에 참가하였다.

부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우리 동서대는 전국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전국 대회에서는 부산의대가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서울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경기대와 서경대는 공동 3위를 차지하였다. 부산대회 우승·전국 대회 준우승을 한 동서대 학생은 10월 동안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문화탐방, 홈스테이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rudvmfhelxp@gmail.com

취직정보 어디서 얻어야 할까?

취직을 앞두고 있다면



▷사진출처-픽사베이

요즘 취직 시작이 매우 어렵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7월 청년실업률이 9.8%에 달하고, 실질실업률은 23.8% 수준이다. 대한민국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상태라는 말이다. 이렇게 취직하기 어려운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각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취직 정보·취직 관련 국가 지원 정보는 어디서 얻어야 할까? '워크넷'과 'NCS'에 취직 정보·취직 관련 국가 지원 정보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워크넷(work-net)'은 고용노동부의 지방 노동관서, 시·군·구 취업알선센터, 중소기업청, 경영 총 연합 등의 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인터넷 사이트이다. 인터넷에 신청한 구인·구직 자료를 전문상담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등록하고 일자리 정보를 직장별, 지역별, 전공 계열별, 산업 단지별, 역세권별, 대기업, 단시간 근로, 일자리 통합, 청년 인

턴,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과 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와 같은 일자리 정보뿐만 아니라 직업과 관련된 심리검사, 한국 직업망, 취업지원 프로그램, 서식 자료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에는 취업희망 프로그램, 행복 내일 취업지원프로그램, 성취 프로그램, 취업특강,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성장(상공장년) 프로그램, 경력단절 여성 프로그램, 취업능력 향상(행복옴름) 프로그램 I·II, Wici(결혼이민여성) 지원프로그램, all A(청년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 CAP+(청년직업지도) 프로그램, 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 Hi(고졸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지원(예비교육 이외) 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한 구직자 훈련과정, 근로자 훈련과정, 기업 훈련과정, 나에게 맞는 훈련 찾기 등 다양한 검사도 제공된다.

취직 관련 국가 지원 정보는 '고용정책

찾기'를 클릭하면 이른바 취준생(취업준비생)들을 위한 국가 기간·전략 산업직종 훈련, 국가직무능력표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대학 일자리 센터 운영, 동행면접, 재학생 직무체험,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등을 비롯하여 취직 후 다시 새로운 직장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내일 배움 카드, 고령자 인재은행,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신중년 사회 공헌활동 지원 또한 이미 취직하여 기업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가족 돌봄 휴직 제도, 고용보협제도, 고용복지+센터, 고용안전 장려금, 무료법률 구조 지원,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제도,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등 다양한 정보들이 나온다.

공기업 취직에 관심이 있다면 NCS를 눈여겨보아 한다. NCS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다.

NCS는 국가직무능력표준표준으로 사업

관리,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교육·자연·사회 과학,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보건·의료, 사회복지·종교,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운전·운송, 영업판매, 경비·정소,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음식 서비스,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인쇄·복제·가구·공예, 환경·에너지·안전 등으로 분류된다.

NCS에서는 진로탐색 및 선택, 직무능력 함양, 취업 준비, 합격수기들부터 CAP+(청년직업지도) 프로그램, 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 Hi(고졸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채용 준비 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직업정보에 대해 검색하여 알아볼 수 있고, 관련 직무 동향상과 정보, 필요 능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출처 : 워크넷, NCS, 네이버 지식백과
김민경 기자
rudvmfhelxp@gmail.com

책 속의 풍경

내 삶 속에서 나를 찾아서



- 책 제목 : 나를 채우는 인문학(문득 내 삶에서 나를 찾고 싶어질 때)
- 책 저자 : 최진기
- 출판사 : 이지퍼블리싱

나를 채우는 인문학은 백 권의 책을 저자가 읽은 다음 시리즈로 구성된 책 중 하나이다. 책의 저자는 “힘든 삶 속에서도 그나마 자신의 삶을 붙잡고 다시 한 번을 외칠 수 있었던 책”들을 소개해주고자 작성했다.

책은 총 10개의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직장>, <사랑>, <여행> 시리즈가 가장 큰 기억에 남았다.

첫 번째 <직장>에서 인상이 깊은 부분은 현재 대학생들 및 직장인들이 겪을 수 있는 내용들의 책을 소개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대학생들은 학교 졸업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자니 돈이 안 벌리고, 대기업이나, 공무원 취업을 준비하자니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된다고 하면 일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말한다. 젊은이들에게 “만약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돈이 안 벌리고 대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나?”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이 돈을 많이 벌고 싶

다고 대답할 것이지만, 이 책을 읽으면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직장인들은 워라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하루 투 워라밸) 워라밸은(Work,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를 뜻하는 단어이다. 회사자리에서 상사가 술을 권할 때 술을 좋아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마시기 싫다고, “제가 원래 술을 못 먹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지금은 술을 먹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워라밸의 시작이며, 시간이 지나 술은 권해준 상사에게 “오늘 소주 한잔 사주십시오, 같이 한 잔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만회할 수 있다고 한다. 진정한 워라밸은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만, 기업 또한 워라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두 번째 <사랑>에서는 사랑에 필요한 덕목의 첫 번째는 배려이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에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하다고 하지만 연인들에게 “당신은 당신의 연인으로부터 배려 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배려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배려라는 것은 끊임없이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아이 행동 하나 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하는 것이 배려의 기초이며 사랑이다. 다만 지나친 관심은 진정한 관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책임이다. 나를 만나 상대가 더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잘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책임이며 사랑이라고 정의하면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떠나는 사람 또한 책임일 수 있다고 추가 정의하였다. 책임의 반대말 또한 정의를 하였으며, 책임의 반대말은 “욕망”이라고 한다. “사랑을 욕구만으로 규정한다면 결

국 사람은 경쟁의 산물이 될 수밖에 없다”의 설리반의 이론적인 개념이다.

세 번째 <여행>에서는 여행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다. “나는 더 이상 여행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작가가 남편과 같이 직장을 그만두고 7,000만 원을 가지고 다니는 세계 여행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현실에 있다. 악착같이 아끼고 모아서 29살에 집을 마련하고 결혼 후에는 2년 6개월 만에 집 대출을 다 갚아야 하며, 직장을 10년 이상 다니고 있는 남편을 만나며, 직장을 가볍게 그만두는 결심이 필요로 하며, 남편 또한 도와주는 남편을 만나야 한다고 한다. 한국에서 사람을 만나서 소개하는 상황이 온다면 대부분 어디 사는지, 어느 동네, 학생인지, 직장인지 이러한 소개 및 질문을 하지만, 외국인과 이야기하면서 소개를 하면,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행을 통해서만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느 곳에 사는지에 대한 압박이 없다. (좋은 곳에 살고 좋은 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 즉, 남이 의심하는 나만을 만들어내지 않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깨달을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여행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파트의 저자는 여성분이지만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된다면 여행을 가고 싶어 하며, 그에 대한 단순한 여행이 아닌 자신을 위로하며 편안한 여행을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를 채우는 인문학”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오면서 겪은 일들을 위로하고자,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마음에 위안을 얻고 힘을 내었으면 좋겠다.



이달의 영화—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 영화제목 :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 영화감독 : 벤 스틸러

머릿속에서나 존재할 것만 같았던 상상이 현실로 되어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떨까? 내가 바라던 이상의 연인이 나타나 나에게 고백을 하는 상상 혹은 건물이 폭발하는 아찔한 상황 속에서 무너져 가는 콘크리트와 잔해들로부터의 위함을 피해 건물을 탈출하는 상상 등. 누구나 현실로 불가능한 일들을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이따금 너무 비현실적인 망고 상상에도 흐트란 미소를 짓기 마련일 것이다. 상상이 주는 상상 그 이상의 즐거움과 쾌락. 이번엔 소개할 영화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매일 무의식의 상상에 빠져있던 남자의 모험적이고 대담한 이야기를 그려 낸 영화이다.

회사 라이프(Life) 지의 사진 현상 관리직으로 16년 동안 일을 해오던 월터는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다. 다행히 아닌 회사가 매각되면서 마지막 호에 실을 사진작가 손의 표지가 될 사진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사라졌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손에게서 받은 것은 부속 사진들과

직접 만든 것 같은 갈색의 얇은 자갈뿐. 애초에 사진을 받은 적이 없었다. 명백히 자신의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진은 애초에 없었어요.”라는 말 대신에 월터는 무작정 사진을 인화하여 손이 있을 것 같은 곳을 추적해 여정을 떠나기 시작한다. 이제껏 월터가 살아오며 가보았던 곳은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있는 피닉스와 내슈빌뿐이지만, 사진을 찾기 위해 여딘가를 향해 수동적으로 움직인 적이 없던 그가 틀을 깨고 처음으로 목적을 향해 발을 움직이는 첫 시작이자 모험이었다.

월터는 상상에 한 번 잠기면 다른 누군가 부르기 전까지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가상의 공간에 빠져 사는 인물이다. 생활이 제대로 가능할지 의문일 정도로 폭 빠지는 월터만의 상상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고 놀라운 풍부한 상상력을 보여준다. 이 영화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월터의 허황되고 과장된 상상이,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직접 겪으면서 실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년의 회사원으로 제가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고백조차 하지 못하는 소심한 월터지만 사진을 찾겠다는 집념으로 그린란드에 오르는 의지 하나는 그가 누구보다 직업에 대한 집착과 애정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누가 사진 한 장을 찾으려 그린란드부터 시작하여 아이슬란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까지 여정을 생각할 수도, 시작할 수도 있을까. 너무 과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과장된 면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화의 초반부와 더불어 후반부에서 월터의 유일한 직장동료이자 후배의 “선배는 최고의 상상였어요.”라는 대사를 통해 그가 직업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고

그것에 직업정신과 자신이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낸다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초에 잘 대처하거나, 살펴보았으면 될 일이었다. 사진 한 장을 구하기 위해 하룻밤 사이에 인구 단 8명이 산다는 그린란드로 갔다가 헬기를 타고 날라 여신을 얻어내고 아이슬란드로 떠나는 마법 같은 현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모든 일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뒤돌아보면 고작 이것 때문에?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지만 그러한 동기로부터 시작되는 첫 출발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어졌을까? 하고 생각해보게 된다. 월터도 사진 한 장을 찾으려고 시작했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듯이 말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펼쳐지는 자연의 아찔한 장관에 월터와 같이 현실에 구박받지 않고 여행을 떠나고 싶은 욕구가 샘솟아 오를지도 모른다. 특히 마지막 회사에서 해고당한 월터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히말라야로 떠나는 과정은 당장 여행 일지 한 장을 들고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게 만든다. 영화 한 장면마다 사진으로 인화하여 벽에 붙이고 싶을 정도로 파랗고 찬란한 색깔이 눈을 사로잡을 것이다. 월터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의 의지와 용기였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은 두렵고 실천으로 이어지기까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첫발을 떼기 시작하였다면 그다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생이란 곧 용기를 내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여여행” 영화에 등장하였던 세릴의 말처럼 성공은 용기를 내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영화, <월터의 상상이 현실로 된다면>이다.

축제·공연·소식

기계 농특산물 축제 2019

- 기간 : ~11.9
- 장소 : 기계 새마을운동 발상지 운동장
- 주최 : 포항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9

- 기간 : ~11.17
- 장소 : 벅스코 BEXCO
- 주최 : 한국 게임 산업 협회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2019

- 기간 : ~11.24
- 장소 : 경주엑스포공원
- 주최 : 경주시



거창 국화 전시 2019

- 기간 : ~11.10
- 장소 : 거창사건 추모공원 일원
- 주최 : 거창군



이순신 장군애 후예들 2019

- 기간 : ~11.23
- 장소 : 이순신 순국공원 일원
- 주최 : 창원시



토요에 의령 농특산물 축제 2019

- 기간 : ~11.10
- 장소 : 전통 농경 문화 테마파크
- 주최 : 의령군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 2019

- 기간 : ~11.10
- 장소 : 경남 통영시 도남동 트라이애슬론 광장 일대
- 주최 : 통영시



어둠 속 교훈을 찾는 여행, 다크투어리즘



▷사진출처 - 브런치 모두의 시간 4370

요즘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 바로 다크투어리즘이다. 휴양이나 관광이라는 기존의 여행의 틀에서 벗어나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현재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다크투어리즘의 형태로 교훈을 얻는 뜻깊은 여행을 가보는 것은 어떨까. 다크투어리즘이란 전쟁이나 학살 등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나 재난, 재해 현장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기 위하여 떠나는 여행을 일컫는 말이다. 블랙투어리즘(Black Tourism) 또는 그리프투어리즘(Grief Tourism)이라고도 하며, 국립국어원에서는 ‘역사교훈 여행’으로 우리말 다듬기를 하였다. 영어사전에서는 죽음, 파괴, 공포스러운 사건과 관련된 장소를 둘러보는 여행이라 정의된다.

다크투어리즘을 가는 이들의 대부분은 역사의 아픈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여행을 계획한다. 다크투어리즘의 대표적인 여행지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400만 명이 학살당했던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가 있다. 독일 학생들이 자신의 역사적 만행을 반성하기 위해 방문하는 장소이다. 이곳에서는 생체실험실, 고문실, 가스실, 처형대, 화장터와 함께 희생자들의 머리카락과 낡은 신발, 옷가지가 담긴 거대한 유리관 등을 살펴보고, 나치의 잔학상을 기록한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다크투어리즘 장소가 있다. 평화로운 분위기 속 아름다운 볼거리에 매해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신비로운 섬 제주도이다. 이러한 ‘제주도’도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였다. 5.10 선거를 거부한 유일한 지역이 되었고 빨갱이 섬으로 낙인찍히는 발단이 되었다.

‘제주 4.3평화공원 기념관’에 가면 혼란스러운 시기 한국전쟁을 전후로 수만 명의 양민이 희생된 제주 4.3사건에 대한 고통스러운 역사를 자세히 들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터진목’에서는 제주 4.3사건 당시 성산면, 구좌면 인근 부락 주민들이 몰살당한 제주 근·현대사의 비극을 간직한 곳이다.

제주도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역사도 간직하고 있다. ‘성산일출봉 해안 동굴진지’에서는 태평양 전쟁 말기 패전의 위기에 처한 일본이 제주에서 본토 방어를 위한 작전을 실행한 곳으로 성산일출봉 동쪽 해안 절벽을 따라 18개의 진지가 구축되어 있다. 아름다운 성산 일출봉에 남은 일본군의 잔재이다. 1919년 3월 21일 제주도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항쟁을 기억하는 제주 항일 기념관은 제주도의 필수 다크투어리즘 코스로 꼽힌다.



▷사진출처 - 시빅뉴스

이 외에도 너븐숭이 얘기무덤,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사리봉 동굴진지, 셋알오름 일제강점기 박물관,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 알뜨르 비행장, 일제 지하병거, 항과두리 항몽 유적지 등 제주도에는 우수한 자연경관과 함께 깊은 역사를 간직한 장소가 곳곳에 존재한다.

또한 격렬한 민주 항쟁을 겪은 광주에서도 다크투어리즘 현장을 둘러볼 수 있다. 5.18 자유 공원에 가면 당시 계엄군에게 끌려온 광주 시민들이 고문을 당하고, 영장에 갇히고 법정에서 군사재판을 받던 상황을 직접 느껴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5.18 민주묘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구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등의 장소가 있다. 여행을 통해 아름다움을 찾는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역사의 고통과 비애를 찾아 나서는 것이 어떨까.

다수의 매체에서 다크투어리즘을 주제로 한 방송이나, 기사가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 다크투어리즘은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이 해당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서면서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그 속에서 역사를 상품으로 보고, 활용하여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지역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좋은 것만을 즐기기에 다녔던 기존 관광 형태에

서 새로운 관광의 패러다임이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크투어리즘에는 여행을 통해 다수가 즐기는 축제나 페스티벌, 힐링과 휴식을 발견할 수 없다. 하지만 다시는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반성, 교훈을 준다.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은 없지만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억하는 여행을 추진해보자. 아픈 역사를 대하는 여행객들의 올바른, 성숙한 태도가 다크투어리즘을 새로운 관광 형태로 모든 이들에게 수용되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어둠을 통한 여행이라는 다소 침체된 뜻으로 받아들여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거부감이 들 수 있다. 여행을 시작한다고 해도 어두운 역사 속 참담함과, 여행지의 비극을 마주해 비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크투어리즘을 통해 역사 교육과 성찰을 느낄 수 있다.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 교훈을 되새기고, 반성을 통해 발전 가능하다. 우리는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적 의미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가슴속에 새기고 앞으로 여행 계획에 다크투어리즘을 권유하고 싶다.

자료출처 : 네이버 포스트, 네이버 두산백과, 김태향 기자
hyangsun3311@gmail.com

독립의 빛을 보지 못 한 순국선열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던 덕수궁 중명전

1905년, 외세의 침략으로 혼란하던 대한 제국은 강력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강박에 의해 명확한 불법 조약인 을사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대한 제국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1945년까지 약 35년이 란 시간 동안 조국을 잃은 슬픔과 비탄에 잠겨야 했다. 이러한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 은 1930년대에 절정을 이뤘다. 일명 민족말 살정책이라 일컫는 통치 속에서 내선일체 론(內鮮一體論)을 주장하며 조선이란 나라 를 역사 속에서 없애려 하였고 강제로 조선 인들을 일제가 벌인 전쟁에 징병했다. 갈수록 가혹하고 무자비한 탄압에도 불 구하고 독립 투쟁을 위해 싸웠던 선조들은 좌절하지 않고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높여 태극기를 흔들었다.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 들을 일깨우고 그 누구보다 앞서서 민중들 을 이끌고 일제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았 다. 순국선열의 정확한 명칭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먼저 죽은 열사들을 일컫는 말 이다.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해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순국선열들 을 소개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유 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와 같이 독립운동 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제하고 이번엔 그들 만큼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숨은 보석과 같은 순국열사들을 소개해보려 한다.

순국선열의 날의 제정
나라를 위해 한 몸 희생하였던 독립운동 가들을 대표하는 날을 떠올리면 대부분 광

복절을 생각한다. 광복절은 대한민국이 일 제의 탄압 속에서 벗어난 매우 뜻깊고 중요 한 날이지만, 광복이 오기 전 일제 치하 속 에서 탄압과 억압 속에서도 항쟁을 멈추지 않았던 열사들을 기르기 위해 제정된 날이 따로 있다. 바로 11월 17일 제정된 순국선 열(殉國先烈)의 날이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본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맞서서 국권 회복을 위해 항거하고 헌신한 독립운 동 유공자들 가운데 일신과 목숨을 잃은 순 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같이 전하고, 이들의 열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공식적인 법정기념일이다. 순국선열의 날이 제정되게 된 유래를 따 라가면 근대에 제정된 날이 아닌 우리나라 최초 단일 정부인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처음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날 은 임시정부에서 '순국선열 공동 기념일 (殉國先烈共同記念日)'로써 을사늑약의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선조들의 의지에서 시 작됐다. 한창 조선의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해 벌어졌던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대한 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아니라는 것 을 제정된 순국선열 공동 기념일을 통하여 광복되는 순간까지 매년 행사를 주최했다.

일제의 부당함을 알고 싶었던 이준 열사
일명 고종 재위 당시에 파견되었던 헤이 그 특사하면 떠오르는 세 인물 이상설, 이 위중, 이준을 떠올릴 수 있다. 1859년 장 남으로 태어난 이준 열사는 한학을 배우며



▶대한민국 임시 정부

성장했다. 경학원을 설립하고 인제 양성에 전력하였으며 법관양성소에 입학해 한성 재판소 검사보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힘 냈으나 탄압오리들의 횡포에 2개월 만에 그만뒀다. 이후로 이준 열사는 본격적인 항일 운동을 전개했다. 1905년, 을사늑약 이 체결되었을 당시에도 강제적인 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상소 운동과 시위운 동을 전개했다. 이준 열사의 광복을 향한 열망은 조선이 완전히 일제의 식민지로 전 락한 뒤에도 이어졌다. 여러 애국 계몽운 동 단체를 조직하여 독립전쟁을 이어나갔 고 신민회를 조직하여 탄압이 시작된 이후 에도 은밀하게 투쟁을 이어나갔다.

1907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라는 제국 시대의 평화를 모 색하는 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에 조선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 해 특사를 파견하게 됐다. 이준을 포함한 이위중, 이상설 세 특사는 일제의 조선 침 략을 규탄하고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선언 하는 책자를 만반에 장식한 각국의 위원들 에게 보내고 신문에 공표했다. 하지만 당 시 일제와 동맹을 맺은 영국을 포함한 열 강들은 냉담한 표현을 내보냈다. 이미 식 민지로 전락한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주국으로서 회의의 참 석과 발언권을 줄 수 없다는 게 당시 회담 측의 의견이었다. 세 특사는 굴하지 않고 회담에 모인 기자들에게 억울함을 알렸으 나 결국 이 일을 계기로 고종이 퇴위당하

는 등 실패로 끝났다. 결국, 이준 열사는 이날을 애痛함으로 지새우다 1907년 조국 의 광복을 보지 못 한 채 순국했다.

동포들과 만세운동을 이끈 윤형숙 열사
납도의 유관순이라 불리는 윤형숙 열사 는 만세운동 중에 일본 경찰에 의해 팔이 잘리고 눈을 찔려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서도 만세운동을 부른 강렬한 독립 의지를 가진 인물이다. 1900년 9월 13일에 여수서 태어난 윤형숙 열사는 초등학교 시절 성서 학원을 이수한 뒤 당시 광주 최초의 여성 중등 교육기관인 수피아 여학교에 진 학했다. 수피아 여학교는 호남지역의 항일 운동 분거지로 유명했다. 근대 교육의 모 태가 되고 3.1 만세운동을 주도하며 많은 여성독립운동가들 배출했다. 그곳에서 윤 형숙 열사는 독립과 투쟁의 의지를 배우고 민족의식을 기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19년 서울을 기점으로 독립 시위 만세 가 일어났다. 고종 황제의 승하 소식에 분 개한 윤형숙과 학생들은 광주 장날을 기해 만세운동에 앞장섰다. 외에도 숭실학교 학 생들, 농민, 기독교인, 시민 등 1천 명이 대거 참가했던 시위에서 윤형숙 열사는 아 리랑을 열창하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 다. 일제의 강력한 탄압 앞에서 윤형숙 열 사는 태극기를 든 원순이 잘리고 오른쪽 눈을 실명하는 참사를 겪었다. 하지만 그 는 오른팔이 잘리면 왼팔로 태극기를 집어 성한 곳 없는 몸을 이끌면서 윤형숙 열사

는 끝까지 시위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윤 형숙 열사는 3.1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잡 혀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명목으 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 았다. 투옥하는 동안 고문으로 인해 왼쪽 눈마저 거의 실명 상태에 이르렀다.

졸소한 뒤 원산의 마르다 윌슨 신학교에 서 신학 공부를 마친 후 전주에서 어린이 교육에 힘쓰기 시작했다. 이후 6.25 전쟁 을 겪은 윤형숙 열사는 전도사라는 이유로 독사와 함께 인민군의 총에 의해 50살 나 이에 순국했다. 그의 공훈은 수십 년 후에 정부가 2004년 건국포장을 추서하면서 다 시 언급됐다. “왜적에게 빼앗긴 나라 되찾 기 위하여 왼팔과 오른쪽 눈도 잃었노라. 일본은 망하고 해방되었으나 남북·좌우의 으로 갈라 인민군의 총에 간다마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어 영원 하라.” 윤형숙 열 사의 무덤에 새겨진 글귀는 그의 정신을 대변하고 있다.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의사
남자현 의사는 영화 <알살> 배우 전지현 이 맡았던 안지현 역의 모티브가 되었던 순국선열이다. 1872년 12월 7일 경북 안동 에서 태어난 남자현 의사는 부친의 가르침 을 받아 어렸을 적에 소학과 대학을 통달 할 정도로 머리가 뛰어났다. 19세의 이른 나이에 결혼 한 그는 몇 년 지나지 않아 6 년 뒤에 단발령과 명성 황후 시해에 반발 해 일어난 을미의병에 참가하였던 남편 김 영주를 잃었다. 남편의 전사 후 유복자 아 들과 시어머니를 보살피고 생계를 이어가 는 독립운동에 나서지 못했던 남자현 의 사는 그의 나이 46세에 중국으로 건너가 1919년 5월 만주에서 조직된 무장독립 운 동단체인 '서로군정서'에 가입했다.

독립군의 뒷바라지를 도맡아서 복만주 일대에 12개의 교회를 설립하고 여성계몽 에 주력하며 10개의 여자 교육회를 설립하 여 여자들도 계몽시키고 독립의 의지를 키 울 수 있게 힘썼다. 1925년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압사를 계획하였으나 경계가 삼엄 하여 실천하지 못했다. 당시 감옥에 갇혀 있던 투옥 중인 애국지사들의 옥바라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1932년 9월, 국제연맹 리턴 조사단이 침 략 진상 파악을 위해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자현 의사는 그들에게 일제의 침략 진상을 알려려고 했다. 일본 의 만주 침략 이후 여론 조성되자 진상을 파악하려고 보낸 조사단이였다. 원순 약순 가락 2절을 잘라서 흰 천에 '조선 독립원 (朝鮮獨立願, 조선의 독립을 원한다)'이란 글씨를 혈서로 쓴 뒤 잘린 손가락과 함께 조사단에 전달했다. 그러나 조사단 파견 이후 경계가 삼엄해지면서 혈서는 전해지 지 않았다.

1933년 초 일제가 중국 동베이지방에 세 운 국가 만주국 1주년 행사를 기해 만주국 대사 무토 노부요시(武藤信義)가 참석한다 는 소식에 남자현 의사는 적장 암살 계획 을 세웠다. 거지로 변장한 뒤 권총 한 자 루와 탄환, 폭탄 2개를 품에 숨기고 하얼 빈으로 떠났다. 무기가 든 운반 상자를 옮 기던 남자현 주사는 거사 직전 밀정의 고 발로 인해 일제 경찰에게 체포됐다. 끝내 거사를 이루지 못하고 하얼빈 주재 일본 총영사관 지하 감옥에 여섯 달 동안 가혹 한 고문에 시달렸다. 투옥 중에도 남자현 열사의 투쟁은 단식으로 거부하는 등 계속 되었고 결국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닷새 만에 1933년 60세의 나이로 “독립은 정신 으로 이루어진다.”란 유언을 남기고 순국 했다. 남지현 열사가 남긴 중국 화폐 248 원은 그의 뜻에 따라 광복이 이루어진 1946년 3.1절 기념식에서 독립 축하 자금 으로 쓰였다. 1962년 건국 훈장을 통해 다 시 남지현 열사는 추서됐다.

순국열사들은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 까지 않았다. 이준, 윤형숙, 남자현 외에 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순국열사들 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 는 몸을 바쳐 싸운 열사, 의사를 외에도 수많은 문학 작품으로 조국을 잃은 비통함 을 표현하고 정신적인 버팀이 되었던 일제 강점 당시 문학 시인들과 소설가들을 잊어 서는 안 될 것이다.
자료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 역대 인물 종합정보시스템, 게이티이미지 코리아
▷사진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여수 시청 공식 홈페이지

한여원 수습기자
hanyeowon0329@gmail.com

국외에 나타난 독립운동 사적지



▶삼일당 터

국외에 나타난 독립운동 사적지는 상당 히 존재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발견된 독립운동 사적지 중, 우리 민족의 발걸음 이 국외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기에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은 관심과 감사함을 함께 느 껴야 한다.

중국
-베이징, 박용만 피살지
북경 신세계 중심 건너편 골목에 위치한 박용만 피살 지는 1928년 박용만이 의열단 원 이해명에게 피살당한 곳이다. 미주에서 하와이 국민군단을 결성하여 활동하던 박 용만이 하와이를 떠나 북경에 온 것은 1919년이였다. 그는 북경을 무대로 군사 통일회 결성에 앞장서면서 무장투쟁노선의 지도자로 활약했다. 그는 1920년대 중반 독립운동의 조건이 어려워지자, 토지개간 을 통한 독립권 기지의 건설이라는 장기적 구상을 하였다. 1926년에 설립한 대륙 농 간 공사는 그와 같은 박용만의 의지를 실 현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대륙 농간 공사 는 북경 교외에 미개간지를 구매·개간하는

한편 군자금 마련 등을 목표로 삼았다. 그 러나 일본은 독립운동계를 분열시키기 위 해 '박용만의 변절' 소문을 북경 한인사회 에 퍼뜨렸다. 그것을 사실로 여긴 의열단 원 이해명은 1928년 10월 17일 박용만을 이곳 골목에 있는 숙소 앞에서 살해하였 다.

-상하이, 삼일당 터
상하이 황포구에 위치한 상하이 터는 상 하이 한인들의 종교 활동의 공간이자 독립 운동의 집회 장소로 활용되었던 곳이다. 1910년 일제의 강제병탄을 전후로 다수의 한인들이 중국 상하이(上海)로 이주하거나 망명했다. 이주 한인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있었고, 이들은 서양 선교사들 의 도움으로 보다 용이하게 현지에 안착할 수 있었다. 그는 1920년대 중반 독립운동의 조건이 어려워지자, 토지개간 을 통한 독립권 기지의 건설이라는 장기적 구상을 하였다. 1926년에 설립한 대륙 농 간 공사는 그와 같은 박용만의 의지를 실 현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대륙 농간 공사 는 북경 교외에 미개간지를 구매·개간하는

한인 기독교인들은 1919년 발표된 독립선 언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됐다. 3·1운동 직후 다수의 한인들이 망명해오면서 기독 교인이 증가했다. 신도가 많아지자 함께 예배할 장소가 마땅치 않게 됐다. 이에 피 치(Gorge Field Fitch) 목사의 주선으로 베이징루(北京路) 18호에 위치한 '북경로 예배당'을 이용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후에는 교민단 사무소를 예배 장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1921년에 이르러서는 기독교인이 더욱 증가하고 교회의 규모도 커짐에 따라, 집회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 이에 프랑 스 조계에 위치한 삼일당(三一堂)을 무상 으로 사용하게 됐다.

삼일당은 미국 전 동국(傳道員)이 중국 기독교인을 위해 미국 감리교회에서 1879 년 설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후 교당의 기능을 상실하고 1917년에는 중국 인 소학교로 활용됐다. 1921년 한인이 이 곳을 교당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4월 부활절 주일부터 한인 기독교인들 은 삼일당을 한인교회로 사용했다. 또한 한인 전용 예배 종교 활동 이외에도 인성 학교의 학예회·졸업식, 국지 기념일·건국 기원절(개천절)·3.1독립 선언일 등의 기념 행사, 국민대표회의 촉진회·연설회·국민대 표회기성회·총회 등의 국민대표회의 관련 행사, 순국 추도식과 환영회 등의 다양한 집회 장소로 활용됐다. 삼일당은 예배 공 간으로 사용되면서 한인들이 전용공간으로 종교 활동뿐 아니라 민족 정체성과 공동 체의식을 확인하고 공화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였다.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 형무소
이사 하야시에 위치한 나가사키 형무소 는 육상경 의거를 일으킨 이강훈, 백정기 등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었던 곳이다. 백 정기와 이강훈은 1931년경 원 신장(元心 昌) 등의 아나키스트들과 함께 '흑색 공포 단(BTP)'을 조직하여 일제에 대한 파괴 공작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1933년 3월에 주 중일본 공사 아리요시 아카리(有吉明)가 일본 정치인과 참모부원, 친일 중군인 등 100여 명을 상하이(上海) 소재의 육삼 정(六三亭)이라는 요정(料亭)에 초청해서 연회를 연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의거를 추진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일제 경찰에게 붙잡 혀졌다.

백정기는 1933년 11월 15년 형을 선고 받고 나가사키 형무소 제2야에 수감되었 다. 그러나 형기를 마치지 못하고 1934년 6월 5일 순국하였다. 이강훈 역시 나가사 키 지방법원에서 15년 형을 받았으나 감 형이 되어 1942년 7월까지 이곳에 수감되 었다. 이강훈은 2중 제 4사 제7호 감방에 수감되었고 1940년 구마모토(熊本) 감옥, 1942년 7월 도쿄의 도쿄타나(豊多摩)에 방구 감소로 이감되었다가 광복 후 석방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金九)는 한국 후 이봉창(李奉昌)·윤봉길(尹奉 吉)·백정기, 삼의사(三義士)의 유골을 국 내로 봉환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일본에 서 활동한 박열(朴烈)에게 요청하여 유골 발굴이 시작되었다. 백정기의 유골은 이 강훈이 같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 문에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다.

삼의사의 유골은 1946년 5월 15일 국내 로 도착한 후 국민장으로 치러졌고 효창 원에 안장되었다. 김익상은 1922년 2월 상하이로 가서 동지 오성륜(吳成倫)과 함 게 2월 28일 일제 군부의 핵심 인물인 일 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를 처단하고자 하였다. 오성륜은 다나카 기 이치가 상하이 세관 부두에 도착하자 먼 저 두 발의 총탄을 발사하였으나 빗나갔 다. 뒤이어 김익상도 두 발의 총탄과 폭 탄으로 그를 겨냥하였으나 총알은 스치고

폭탄은 불발되었다. 이 의거로 붙잡혀 나 가사키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도쿄도, 양근환 의사 의거지
도쿄도 치요다구에 위치한 양근환 의사 의거지는 양근환 의사가 1921년 2월 도쿄 역호텔에 머무르고 있던 친일과 민원식을 처단했던 곳이다. 일본지역에서의 의열투 쟁은 1921년 2월 16일 양근환에 의해 비롯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황해도 연백 출신인 양근환은 1921년 친일단체인 국민협회 회 장 민원식이 참정권 운동을 하러 도쿄에 와서 활동한다는 소식이 연일 신문에 보도 되자 그를 처단할 것을 결심하였다. 2월 16일 도쿄역 호텔로 찾아가 유학생동우회 의 이기영(李基寧)이라는 이름으로 면회를 하였다. 양근환은 “당신은 정말 우리나라를 배반하는 자이다”라면서 민원식을 처단하 렸다. 양근환은 나가사키에서 상해로 가는 야하타 마루(八幡丸)에 승선했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양근환 의거자가 도쿄 제국호텔 로 알려졌던 적이 있으나 이는 잘못 알려 진 것이다. 2002년 조사를 통해 실제 의거 자가 도쿄 역사 옆에 있는 도쿄역 호텔이 었음이 밝혀졌다.

유럽
-영국 한국 친우회 결성 장소
영국 국회 의사당에 위치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런던 주재 외교원으로 임명된 황기환이 조직한 한국 친우회 결성지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런던 주재 외교원으로 임명된 황기환은 친한 인사였던 매켄지와 협의하여 영국 국회 하원 제6호실에서 1920년 10월 26일 국회의원과 교수 등 각 계 저명인사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친우회(The League of Friends of Korea)를 조직하였다. 영국 국회의사당은 일반 여행객의 관람 을 허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 지 제약이 가쳐져 자유로운 조사활동과 사 진촬영 등이 어려웠다. 그러므로 한국 친

우회가 결성된 장소였던 하원 제6호실의 정확한 위치를 앞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 다. 하원 위원회 회의실 하나의 규모는 친 우회 결성 당시 모였던 인원인 62명이 회 의를 진행하기에 적당한 규모이다.

러시아
-연해주, 독립문 터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독립문 터는 1920년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여 동 포들이 세운 항일운동 기념비이다. 1920년 12월 15일 임시정부가 통합하기 위해 해산 하였던 대한 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는 부 활을 선언했다. 이어 2월 23일 신한촌에서 각 단체 대표자가 모여 회의를 열었다. 회 의에서는 각 지역이 모두 같은 날 같은 시 간에 3·1독립 선언 기념회를 갖기로 하였 다. 이 밖에도 여러 사항이 결의되었는데 독립문을 건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1920년 독립 선언 기념식(3·1운동 1주년 기념식)은 3월 1일 신한촌 한민학교(韓民 學校)에서 거행되었다.

기념식에는 한인단체뿐만 아니라 혁명군 관련들도 초대하였다. 혁명군 사령관 세르 게이 라조를 비롯하여 각 신문사 및 사회 단체의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당일 기념 식 행사를 위해 한인들은 태극기를 가지고 모였으며, 기념식 후에는 애국심을 고양시 키기 위한 연극도 진행되었다. 신한촌이 재개발되면서 독립문의 위치를 비정하는 게 어떻게 되었는지. 이러한 이유로 위치 를 정확하게 비정하는 것보다 독립문을 세 우고 3·1독립선언 기념식을 거행한 의미를 부각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신한 촌의 역사와 한인들의 노력을 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독립문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 독립 기념관
▷사진출처 - 독립 기념관

조은빛 수습기자
dmsqlc111@gmail.com

■ 울산 옥외 공모전 수상자 학생과의 만남 - 디자인학과 김채원 학생

울산 옥외 공모전 금상 수상자 김채원 학생

‘조선 막걸리’로 현대인의 소통을 표현하다



▶ 김채원 학생

디자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채원 씨는 최근 울산 옥외 공모전에서 ‘조선 막걸리’라는 작품을 통해 금상을 수상하였다. 옥외 공모전에 수상한 동서대 학생은 총 다섯 명이며 동상, 특상, 입상 등의 상을 휩쓸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관해 조상의 지혜로부터 현대인의 소통을 이끌어낸 작품에 대한 설명 및 수상 소감을 들어보고자 한다.

Q.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디자인학과 3학년 재학 중인 김채원이라고 합니다.

Q. 먼저 공모전 수상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옥외 공모전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렇게 큰 상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 아직 실감이 잘 안나요. 처음에 결과를 보고 바로 부모님께 연락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좋았어요. 공모 작품 진행에 큰 도움 주신 이진호 교수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Q. 이번에 참여하신 울산 옥외 공모전은 무엇인가요?

A. 울산 옥외 공모전은 공모전을 통해 품위 보존 및 권의 보호와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옥외광고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작광고물 도안 그리고 모형과 기설치 광고물 총 3분야이며 제가 수상한 부문은 창작광고물 도안입니다.

Q. 수상하신 작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조선과 현대인의 소통 조선 막걸리는, 옛 조선 조상님들의 지혜와 여유를 현대 세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소통을 한다는 컨셉이며 막걸리를 중간 매개체로 한 이유는 막걸리가 한국 고유 전통 술이며 오랜 역사를 지녀왔고 또 현재에까지도 꾸준히 사랑을 받아 왔기 때문에

적합하다 판단하였고 깊은 전통의 느낌을 주고 싶어 “조선 막걸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Q.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교수님의 피드백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사실 공모전 출품작 전에 로고 시안이 몇 개 있었는데 지금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어요. 교수님의 피드백을 거친 최종 시안과 처음 시안과 비교해보면 교수님 말씀 듣기를 잘한 것 같아요.

Q. 공모전을 준비하며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일화, 또는 기억나는 점이 있을까요?

A. 사실 출품 판넬에 나와 있는 목업 이미지(로고 적용 이미지)에서 친구하고 같이 서면 카페거리 건물을 촬영한 사진들이 몇 개 있어요. 사진을 찍으러 할 때 차가 지나간다가나 사람들이 갑자기 지나간다가나 해서 카메라 들고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길 한가운데서 쭈뼛거리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기억이 아직 있어요.

Q. 공모전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줄 말이 있으시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A.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저도 그랬었고 자신이 없어도 지금 작업하는 작품이 어떤 공모전과 컨셉이 맞다면 출품을 해보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교수님께도 피드백 혹은 질문을 많이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Q. 옥외 공모전을 발판삼아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A.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디자인을 잘하고 있을까?”, “디자인이 나의 진로가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상을 받으면서 앞으로 디자인에 관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디자인에 있어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하였습니다.



▶ 김채원 학생의 작품 ‘조선 막걸리’

Q. 작품 내에서 가장 나타내고 싶었던 부분은 혹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A. 아무래도 막걸리의 전통성과 그 깊이를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막걸리가 유행하면서 바나나 막걸리, 딸기 막걸리 등 다양성을 고려하여 판매가 되기도 하였는데, 맛있고 디자인도 예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부분이 한국 전통성을 조금 가린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로고에 돌보기라는 매개체를 넣어서 막걸리의 전통성을 연구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Q. 작품 제작 도중 힘들었던 때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난(스트레스)을 이겨낸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작품 제작 당시에 1화기였고 또 복학 시기였어서 적응하는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다행히 수업 중에 같이 듣는 동기 친구가 있어 같이 힘들어하며 이야기 나누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공모전 이외에도 만들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A. 영화 혹은 게임 포스터와 콘셉트 아트 제작에 어릴 때부터 관심이 컸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공모전도 내보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A.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발전하고 좋은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학생분들 모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옛 선조들의 지혜와 여유를 나눔과 동시에 소통을 추구한다는 김채원 학생의 작품과 그에 대한 생각 및 공모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공모전이 스펙의 하나로 여겨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이들에게 응원이자 좋은 동기가 되었으면 한다.

신현정 수습기자
hyujk369@gmail.com

■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기념 - 관광학부 성은희 교수

부산, 국제회의의 도시로 거듭나다

한국 MICE산업의 전망에 대하여



▶ 세계적인 국제회의이자 기념비적 외교행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다가오는 11월 25일,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부산에서의 개최가 성공적으로 유치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09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이래, 2014년과 2019년 부산에서만 두 번 개최되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세계적인 국제 회의로서 가지는 의미와 이와 관련된 부산 MICE 산업의 전망에 대해 오랜 기간 컨벤션 산업에 종사하고 연구했던 관광학부 성은희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Q. 안녕하세요. 성은희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현재 동서대학교 관광학부 이벤트 컨벤션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학교에 오기 전 20년 가까이 컨벤션 플래너(convention planner)로 활동하였다. 이번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대행사인 ㈜인터컴에도 10여 년 근무했으며, PCO 기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다양한 국제회의 및 컨벤션을 총괄하는 활동을 해왔다.

Q.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우선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약자로서 국제 정세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연합체이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 관계를 수립한 이래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다. 세계적인 정부 회의로서 이례적으로 한국에서만 3차례(2009, 2014, 2019) 개최하게 되었으며, 그중 부산에서 2회 개최한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이번 2019년 특별정상회의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주목되며, 참석한다면 전 세계에 부산이라는 도시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평화의 도시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Q.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는데 추진 배경이 무엇인가요?

A. 2009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2014년도에 부산에서 개최되고 그 후 5년 만에 부산에서 다시 개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산은 2005년 APEC 정상회의와 2014년도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다양한 정부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통해 축적한 컨벤션 노하우와 부산의 관광 매력도 및 특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오거돈 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가 특별정상회의를 유치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부산이 개최도시로 선정될 수 있었다.

Q. 이제까지 개최되었던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가져온 개최성과로는 무엇이 있었나요?

A. 2014년도 부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개최 후 신발 산업 등 부산기업들의 인지도와 교역이 베트남을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에서 높아졌으며, 부산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의 아세안 국가로의 진출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17년 부산에 아세안 문화원(해운대)이 설립되어 아세안 국가와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정상회의 개최로 향후 부산이 아세안 문화의 중심지 혹은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이번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부산에 가져올 기대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부산의 위상 및 도시 브랜드가 제고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부산은 관광객의 대부분이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사드 문제 등으로 인해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받았으나, 정상회의 개최로 관광대상을 아세안 국가로 저변 확대하는 기회를 창출하게 된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는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계 등의 회의 및 행사들도 동반 개최된다. 즉, 문화관광 장관회의, 산림최고위급 회의, 행정장관 회



▶ 동서대 관광학부 성은희 교수

의, 특허청장 회의 등 관련 고위급 장관들의 회의와 기업인들의 경제 교류, 다양한 전시회, 세계의 미디어들을 초청해 팸투어, 푸드 스트리트, 패션워크, 문화로 드쇼 등 다양한 행사가 동반 개최되어 분야별 교류와 네트워크 강화의 기회가 제공된다.

Q.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의 MICE 산업에 있어 가지는 의미가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A. MICE 산업은 도시마케팅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국내외 많은 도시가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러므로 부산이 글로벌 국제회의의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국제회의 도시 부산이라는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이 MICE 산업 관련한 노하우 축적할 수 있다. 컨벤션센터, 호텔, 여행사 및 렌탈 업체 등 각종 관련 기업의 매출이 증대되고 국제행사 경험 노하우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관련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정상회의 현장 요원 참여로 부산의 전공 학생들에게도 국제행사 경험을 통해 국제화 및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교육의 방향이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향상으로 집중되는 시대에 MICE 산업은 창의성이 요구되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다. 즉, 아이디어 개발과 기획업무가 대부분인 MICE 전문가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쟁력 있는 직업이다. MICE 산업은 부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대표 융복합 산업이므로 국제적인 교류업무와 함께 기획력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학문이다.

김수영 수습기자
tndudf1326@gmail.com

이달의 성경 속 인물 - 히스기야



▶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자, 히스기야

여호와는 나의 힘

히스기야가 살던 시대의 배경은 국내적으로는 극도의 종교적 타락으로 병들고, B.C. 728년부터 B.C. 687년까지를 배경으

로 당시는 B.C. 722년 앗수르 왕 살 만에 셀 5세에 의해 북 왕국이 멸망함과 동시에 그 여세를 몰아 앗수르가 남유다를 침

입없이 위협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위기감이 한참 고조되어 있던 때이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이다. 유다 왕 아하스와 아비야 사이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3년에 히스기야가 25세에 13대 유다의 왕으로 즉위 되어 29년간 통치하였다. 초기 13년 동안 부친 아하스와 함께 통치하다가 부친의 무능력으로 실권을 장악한 뒤 우상 숭배에 빠졌던 부친이 더럽혔던 성적을 깨끗이 정화하고 성전 문을 다시 열고 여호와 예배를 회복시켰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정직히 행하여 미가 선지자와 함께 백성의 영적 각성 운동을 벌이는 등 구약 시대 가장 신실한 통치자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앗수르 남파 정복에 맞서야 하는 위기 정국을 신앙으로 헤쳐나간 3대 현군(여호사밧, 요시아 등)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왕하 19:5)라는 구절을 보았을 때 성서에 나오는 왕들 중 몇 안 되는 평생을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나라를 바르게 통치한 성군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형통케 하셨다고 한다.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 숭배의 단을 제거하며 유월절을 다시 제정할 만큼 과감한 개혁을 시도한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다. 또한 왕의 신분으로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모든 것을 의논하며 기도할 요청할 만큼 겸손하며, 앗수르 침공으로 위협에 처했을 때, 또 자신이 병들었을 때 기도도 해결을 받을 만큼 전적으로 기도에 힘을 썼다.

앗수르 침입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안에 수리 시설을 갖춰 적의 공격에 대비할 정도로 침착하고 세밀한 지도력을 겸비했는데 히스기야의 치세에 아시리아 왕 센나케리브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고 으러렸다. 아시리아의 위협이 계속되자 선지자 이사야는 신이 보호해줄 거라며 히스기야를 안심시켰는데 그 후 그의 말

대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쳤다.

훗날 히스기야가 등장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이사야가 찾아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선지자이다) 이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하였다. 이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었다. 히스기야가 병의 치유와 생명 연장의 징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징표로 헤시게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 가게 하셨다.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을 때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졌다고 기록된다. 바벨론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병에서 살아났으며 결국 특사를 보냈는데 이들은 사실 정탐꾼이었고 교만해진 히스기야는 어리석게도 바빌론 대사에게 보물을 보여주었다. 바벨론 사자들에게 유다의 보물을 공개하며 자랑함을 통해 허영

심 있고 겸손한 자로 평가되었다. 이사야는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를 찾아와 “왕국의 모든 것과 너의 조상들이 오늘날 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에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와 말씀이 선 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라고 대답하였다. 이사야의 예언은 그의 뒤를 이은 아들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나게 된다. 므낫세가 현명한 왕이었다면 신앙심으로 헤쳐나갈 수 있었을 테지만 므낫세는 타락했던 왕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히스기야]

▷사진출처-

네이버 블로그 ‘아.낙.네.드락’
네이버 블로그 ‘안산 빛과 생명교회’
임소정 수습기자
dlathwid2428@gmail.com

[illegible]

- 공모분야 : 공모전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일정 : ~2019. 11. 10. (일)



- 공모분야 : 공모전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일정 : ~2019. 11. 13. (수)



- 공모분야 : 공모전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일정 : ~2019. 11. 14. (목)



- 6.25 전쟁 70주년 사업
국민 아이디어 공모
- 공모분야 : 공모전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일정 : ~2019. 11. 14. (목)



- 공모분야 : 공모전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일정 : ~2019. 11. 15. (금)



- 공모분야 : 공모전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일정 : ~2019. 11. 18. (월)



■ 2019 픽션×던파 크리에이티브 리그
공모전

- 공모분야 : 공모전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일정 : ~2019. 11. 20. (수)



- 공모분야 : 공모전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일정 : ~2019. 11. 20. (수)



- 공모분야 : 공모전
- 응모대상 : 만 19세~만 39세
- 공모일정 : ~2019. 11. 22. (금)



- 공모분야 : 공모전
- 응모대상 : 대학(원)생
- 공모일정 : ~2019. 11. 22. (금)



- 제12회 서울영상광고제
Young Creative Awards
- 공모분야 : 공모전
- 응모대상 : 전국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후학생 개인 또는 팀
- 공모일정 : ~2019. 11. 28. (목)



- 공모분야 : 공모전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일정 : ~2019. 11. 28. (목)

동서인의 센스 넘치는 N행시!

$$H|:$$

4:

리 :



무더운 더위가 가시고 어느덧 초겨울이 찾아왔다. 중간고사와 더불어 환절기
로 인해 고생한 학우 여러분들께 ‘비나리’를 전하고자 한다. 비나리란 축복의
말을 뜻한다. 학기의 중반을 지나온 지금, 휴식을 통해 스스로를 정비한 후
학기 말까지 힘내서 달려갔으면 한다. 학기 말까지 파이팅!

예시)

비 :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나 : 나아갈 수 있도록

리 : 이 순간에 머무르지 말고 힘냅시다!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써서 산학협력과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거나 010-4760-3385로 연락주세요

※ 11월 18일까지 퍼즐에 응모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두 분에
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는 11월 20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학 과 : _____
 . 학 년 : _____
 . 이 름 : _____
 . 연락처 : _____